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9年6월1일 (토) 제 785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 중 현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린이주일
설교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18:16~17>

시미즈 노조미 (오사카교회 교육주사)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회력은 중요합니다. 역(曆)이라는 것은 그 나라나 지역의 문화, 풍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들 인간은 각자의 문화, 풍습, 그리고 축제를 경험함으로써 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회에는 교회력이 있고, 그때 그때의 예배, 절기, 행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교회력과 함께 예전의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예전의 색도 또한 어린이들과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게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절기가 바뀔 때에는 반드시 예전의 색에 대해 “색깔의 이야기” 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특별한 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를 나타내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언제나 재미있는 답이 돌아옵니다. 제가 오사카교회에서 교육주사로서 십간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잘 이해해서 의외로 진지하게 대답을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재미있는 이유로 많은 색들을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청색”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이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해주는 색이기 때문”이라고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즐겁게 이야기 해줍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쓰이는 “백색”에 대해서도 “이번 절기의 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백색입니다. 백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옷 색깔”, “예수님의 옆에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색” 등등, 약간 잘 모르는 이유도 포함해서 생기있는 표정, 친구들의 재미있는 대답을 기대하는 두근두근거리는 얼굴들을 보면, 어린이들을 앞에 놓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신 장면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종종 어린이의 순진 무구하고 귀여운 부분을 떠올리고, 이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만 당시 어린이들은 좋은 이미지의 존재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서에도 “남자만으로”라고 몇번이고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2000년 이상 지난 지금의 일본사회에서도 어린이라는 존재는 변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에 관해 외치면서도 아직 어른들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일본 교회에서 어린이의 소리가 적어져 온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어린이라는 존재를 무시하여 온 것은 아닐까요? 어린이는 애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태도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른의’ 사정을 강요해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무시당해 온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처럼 굴면굴수록 사건은 일어나고, 시끄럽고, 어른들은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조용히 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일어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자신의 신앙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린이들과의 교제로부터 생기는 ‘서로의 신앙 성장’을 지향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라는 작은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차분히 예수님의 말씀과, 어린이들과 마주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年 青年会全国協議会 夏季修養会案内

青年会全国協議会では下記の通り夏季修養会を行います。この機会にぜひ参加して、信仰のことや在日のことなどいろいろな悩みを語り合っては如何でしょうか。ぜひご参加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記

- ◎テーマ 「キリストにあって、1つ」 ~喜ぶ人と共に喜び、泣く人と共に泣く~
- ◎日時 2019年8月12日(月)~14日(水)
- ◎開催地 愛知県民の森 〒441-1693 愛知県新城市門谷鳳来寺7-60
- ◎参加費 20,000円
- ◎補助 学生は参加費キャッシュバック有、交通費全額補助
- ◎問合せ・申込先 代表 中野晃徳 nknaknr0821@gmail.com 副代表 張晶洙 suyachan0127@gmail.com

관동지방회

제70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김병철 목사(동경성산) 선출

2019년 4월29일, 재일본한국YMCA에서 관동지방회 제 7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95명 중69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임원 개선, 헌의안이 승인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지방회장 장경태목사가 <주여호와 나의 힘> (합3:16-19)의 제목으로 설교하고 부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중요한 보고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장승권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견, 동경중앙교회 부임), 구자우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파견,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부임)



김병철 신회장

- (2) 헌의안 승인
 - 장로 증원: 동경중앙교회2명, 요코하마교회2명, 시나가와교회1명, 가와사키교회 2명, 동경제일교회2명
 - 2017년도 예산안: 19,125,745円
- (4) 신 임원
 - 회 장: 김병철목사(동경성산)
 - 부회장: 이명충목사(요코하마), 김일환장로(동경)
 - 서 기: 광경환목사(동경오아시스)
 - 부서기: 김용소목사(니시아라이)
 - 회 계: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장로(요코하마)
 - 전도부장: 김근식목사(한사랑)
 - 교육부장: 이혜숙목사(사랑의)
 - 사회부장: 김신야목사(요코스카)
 - 선교협력부장: 김근식목사(한사랑)
 - 청년부장: 김한나목사(오미야)
 - 여성부장: 광은주목사(샘물)
 - 장년부장: 이명신목사(야마가타우리)
 - 고시부장: 장경태목사(후나바시)
 - 재정부장: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장로(요코하마)
 - 감사: 김영천장로(동경), 신대영장로(동경희망)

중부지방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정수환 목사(豊橋) 선출

2019년 5월2일 하마마츠(浜松) 교회에서 중부지방회 제5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30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각종 보고와 임원개선,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지방회장 최화식목사의 <살아 있으면 희망이 있다> (전9:4)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권윤일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헌의안 승인
 - 장로 증선: 名古屋교회: 2명
 - 岐阜、浜松、大垣교회의 선교비 보조 청원
 - 豊田めぐみ교회의 지방회 부담금 보조 청원
 - 박태원, 김지일목사의 무임소 목사연장
 - 2019년도 예산안 (5,821,843円)
- (2) 신 임원
 - 会 長: 鄭守煥牧師 (豊橋)
 - 副会長: 全炳玉牧師 (名古屋南), 崔宰熏長老 (名古屋)
 - 書 記: 金明均牧師 (名古屋) 副書記: 高誠牧師 (岐阜)
 - 会 計: 金勝正長老 (豊橋) 副會計: 金誠淑長老 (名古屋)
 - 伝道部長: 許光涉牧師 (岡崎)
 - 教育部長: 權潤日牧師 (浜松)
 - 社会部長: 蔡銀淑牧師 (大垣)
 - 青年部長: 高誠牧師 (岐阜)
 - 女性部長: 金珍明長老 (長野)
 - 考試部長: 鄭守煥牧師 (豊橋)
 - 韓日宣教協力委員会: 鄭守煥牧師 (豊橋)
 - 電磁미디어위원회: 金勝正長老 (豊橋)
 - 會計監査: 金光旭長老(名古屋), 高在道長 (名古屋)



정수환 신회장

관서지방회

제70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임명기 목사(京都) 선출

2019년 5월6일 오사카니시나리(大阪西成) 교회에서 관서지방회 제7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78명 중 73명이 출석하여 각종보고와 임원개선,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개회예배에는 부산동노회장 남기룡목사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딤후6:11-1) 라는 설교가 있었고, 부회장 임명기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김신우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파견, 大阪교회 부임)
- (2) 헌의안 승인
 - 장로선출 (증원): 京都교회2명, 京都南部교회1명, 大阪北部교회3명, 大阪교회4명, 堺교회1명
 - 2019년도 예산안 승인 (8,668,784円)
 - 관서 성서신학원의 원장, 이사, 감사 승인
- (3) 신 임원
 - 会 長: 林明基牧師 (京都)
 - 副会長: 許伯基牧師 (京都南部), 金成元長老 (大阪)
 - 書 記: 朴愛仙牧師 (今福)
 - 副書記: 金鍾權牧師 (平野)
 - 会 計: 裴良一長老 (京都)
 - 副會計: 李昌洙長老 (平野)
 - 伝道部長: 朴成均牧師 (和歌山第一)
 - 教育部長: 宋南鉉牧師 (大阪第一)
 - 社会部長: 李根秀牧師 (大阪K C C)
 - 青年部長: 崔亨喆牧師 (枚岡)
 - 女性部長: 金錦順長老 (布施)
 - 考試部長: 趙永哲牧師 (大阪北部)
 - 宣教協力部長: 許伯基牧師 (京都南部教会)
 - 壯年部長: 金周明長老 (京都南部)
 - 監査: 金正吉長老 (大阪北部), 黄裕錫長老 (大阪)



임명기 신회장



서부지방회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이중재 목사(川西) 선출

2019년 4월29일에 서부지방회 제35회 정기총회가 가와니시(川西)교회에서 총대원 39명 중에 30명이 모여 개최되어 각종보고 및 중요한 현의안을 승인하였다. 개최예배에는 지방회장 한세일 목사의 <한계를 넘어서> (수6: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부회장 이중재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 윤중현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로부터 파송받아 明石교회 부임)
- (2) 장로선출(증선) 청원 : 武庫川교회1名、神戸교회1名
- (3) 규칙개정 :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지방회 사무소를 神戸교회 내에 두기로.
- (4) 2019년도 예산안 : 11,252,002円 (그 중에 전년도 이월금 3,530,002円)
- (5) 임원개선

- 会长 : 李重載牧師 (川西)
- 副会长 : 梁榮友牧師 (武庫川)、金哲鎬長老 (神戸東部)
- 書記 : 韓澤柱牧師 (姫路)
- 副書記 : 韓承哲牧師 (神戸東部)
- 會計 : 朱宗中長老 (西宮)
- 副會計 : 朴永旻長老 (神戸東部)
- 伝道部長 : 韓世一牧師 (神戸)
- 教育部長 : 金永柱牧師 (西宮)
- 社会部長 : 李相德牧師 (三次)
- 信徒部長 : 金承熙牧師 (岡山)
- 考試部長 : 梁榮友牧師 (武庫川)
- 宣教協力部長 : 李重載牧師 (川西)
- 監査 : 尹聖哲長老 (神戸)、梁昌熙長老 (武庫川)



이중재 신회장



在日大韓基督教会
西部地方会第35回定期總會
日時:2019年4月29日 午前10時30分~ 場所:在日大韓基督教会 川西教会堂

別府教会

조현규목사 위임식 거행 고조중래목사의 장남으로서대를 이어



2019년5월5일(주일) 오후, 서남지방회 벳부(別府)교회의 조현규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천봉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중간사 김병호목사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23:1-6)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서남지방회장 김인파목사의 사식으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 위임받은 조현규목사는 198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기독교교육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특히 조현규목사는 증경총회장이며 과거 츠쿠바동경교회 및 후나바시교회에서 목회하였던 故·조중래목사의 장남으로서 대를 이은 선교사로 기대가 크다. 가족은 부인과 2녀가 있다.

서남지방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김인과 목사(福岡) 선출

2019년 4월29일 하카타(博多)교회에서 서남지방회 제5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20명이 출석하여 각종보고와 임원개선, 현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지방회장 이해관목사의<우리 아버지>(마6:9)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윤선박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 조현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으로부터 파송받아 別府교회 부임), 김성언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파송받아 下関교회 부임)
- (2) 현의안 승인
 - 서남지방회 규칙 개정/수정 청원
 - 熊本·大分 지진 특별위원회를 선교협력부 활동내에서 계속
 - 장로 선출(증선) : 小倉교회 1名、折尾교회 1名、福岡교회 2名
 - 別府교회의 재정보조 청원
 - 2019년도 예산안 (7,630,000円)
- (3) 신 임원

- 会长 : 金仁果牧師 (福岡)
- 副会长 : 金聖孝牧師 (熊本) 金定明長老 (宇部)
- 書記 : 尹善博牧師 (博多)
- 會計 : 高文国長老 (別府)
- 教育部長 : 辛治善牧師 (福岡中央)
- 社会部長 : 朱文洪牧師 (小倉)
- 宣教協力部長 : 尹善博牧師 (博多)
- 女性部長 : 千奉祚牧師 (折尾)
- 考試部長 : 金聖孝牧師 (熊本)



김인과 신회장



東京中央教会

장승권목사 위임식 거행 집사 안수, 권사 취임, 명예장로 추대식도



2019년5월12일(주일) 오후, 관동지방회 동경중앙교회의 장승권목사의 위임식과 집사 안수식, 권사 취임식, 명예장로 추대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병호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관동지방회 부회장 이명중목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교회> (딤후4:2) 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서 거행된 윤초자 명예장로 추대식, 김도연, 최홍진집사 안수식, 이유선, 이정화,제갈계옥 권사 취임식은 신임 당회장 장승권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특히 금번 예식에 임직자들과 함께 드려진 감사헌금(85万円)을 총회내 미자립교회와 한국 강원도 산불 화재로 전소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보내기도 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경중앙교회의 이제부터 시작되는 선교적 발걸음에 큰 기대를 가진다.

금번 위임받은 장승권목사는 1971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18년6월에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아 부임하였다.

明石教会

윤종현목사 위임식 거행 이성우 명예목사 추대식도 동시에 거행



2019년5월19일(주일) 오후, 서부지방회 아카시(明石)교회에서는 윤종현목사의 위임식과 이성우 명예목사의 추대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한택주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중간사 김병호목사가 <명예를 매고> (렘28:1-11)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서부지방회 회장 이종재목사의 사식으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으며, 이어서 거행된 이성우 명예목사 추대식은 윤종현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위임받은 윤종현목사는 196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로 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가족은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아카시(明石)교회의 명예목사로 추대받은 이성우목사는 194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8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일본의 코베개혁파신학교, 아이치대학 법학부 등을 수학하였다. 1982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로 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아 豊橋교회(1982년~1989년), 武庫川교회(1989년~2012년)을 섬기고 2012년부터 아카시(明石)교회에 부임하여 2018년에 정년은퇴 하였다. 그동안 서부지방회장, 총회 찬송가 위원장 및 제48회기(2005년-2007년)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関西地方会

아슈람 기도회수양회 개최 최홍규목사(서울가리봉교회)를 강사로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하는 제48회 아슈람 기도수양회를, 지난 5월 13일(월)~14(화), 호텔 로얄힐福知山에서 <함심하여 기도하면!> (마18 : 19)라는 주제로, 최홍규목사(서울가리봉교회)를 강사로, 지방회 각 교회로부터 95명이 모여 가졌다.

강사 최홍규목사는 개회예배에서 <귀중한 사람> (대상4 : 9~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참석자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주었다.

예배 후에는 분단모임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자기 소개를 하며, 기도회 참가 목적과 기도의 과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최영숙 집사(오사카북부교회)의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 설교에서 최홍규목사는 <찾을 때와 부를 때> (사55 : 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개회 예배 때 보다 더 큰 은혜를 나누었다. 특히, 공군군목을 할 때 있었던, 신앙예화를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저녁예배 후에는 2차 분단기도회 시간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다음 날, 세 번째 설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대하20:20~23)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기도, 찬송, 묵상, 분단간증 등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는 기도회였다.

(보고 : 송남현목사)



下関教会

김성언목사 위임식 거행 김종무목사의 장남으로서 재일선교에 기대



2019년5월19일(주일) 오후, 서남지방회 시모노세키(下関)교회의 김성언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최영신목사의 사회 아래 개최된 예배에는 총회장 김종현목사가 <주의 사랑에 보답하여> (고후5:11-15)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서남지방회장 김인과목사의 사식으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 위임받은 김성언목사는 197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중, 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및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로 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김성언목사는 과거 西新井교회와 船橋교회에 선교사로서 목회하였던 金鍾武목사의 장남으로서 부친 선교사의 대를 이어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섬기게 되어 기대가 크다. 가족은 부인과 1녀가 있다.

熊本·大分지진3주년 기념예배 완공된 지 얼마 안된 쿠마모토교회에서 개최

완공된 지 얼마 안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쿠마모토(熊本)교회에서 4월 22일, 熊本·大分 지진 3주년 기념예배 및 보고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사회위원장 정수환 목사가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본 문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진 보고회는 먼저 佐藤信行氏が 외국인 재해자 지원센터, 飯塚拓也목사(관동교구선교위원장)의 인사 후, 熊本지구 보고를 川島直道목사(쿠마모토 지구 위원장), 大分지구 보고를 工藤俊一목사(오오이타지구 위원장), 엘피스熊本 보고를 김성효 목사(엘피스熊本센터장)가 하였다. 참가자는 총36명 서남지방에서는 3명이었다.

지진 재해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아직 1만 6천명 이상이고 내년 3월 말에는 모든 피해자가 재해공영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그 때까지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로 지원하기 바란다.

김건목사(川崎교회)가 소천 전야식과 고별식에 600명 이상이 조문



재일대한기독교교회 부총회장이며 가와사키(川崎)교회 담임목사인 김건목사가 지난 2019년 5월11일, 지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59세 였다.

고·김건목사는 1959년 일본 쿠마모토(熊本)에서 태어나고 동경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1988년에 관동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札幌교회, 大阪교회, 下関교회를 목회 하고, 캐나다 유학을 한 후 2003년에 川崎교회에 부임하여15년간 목회하였다.그동안, 관동지방회장, 총회 역사편찬위원장, 부서기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5월15일, 16일에 거행된 전야식과 고별식에는 연인원 6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참석하였다.

<전호 공고의 정정>

전호의 공고 「2019년도 목사·전도사 고시 및 선교사 가입 고사」의 년도가 틀렸으므로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